겨울방학 마무리는 뮤지컬과 함께

햄릿: 얼라이브

'굿바이 위크'·'백스테이지 투어' 진행

모래시계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 등 이벤트

뮤지컬 '햄릿:얼라이브'와 '모래시계' 포스터. /CJ뮤지컬·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만나보면 좋을 웰메이드 창작뮤지컬 두 편을 소개한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을 무대 위에 올린 '햄릿:얼라이브'와 동명의 인기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모래시계'다.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는 그동안 관객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굿바이 위크' 및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한다.

'백스테이지 투어'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오는 18일과 24일 총 2회,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무대 뒤 백스테이지와 실제 공연의 조명 시연, 그리고 강봉훈 연출과 '클로디어스'역의 양준모, 임현수 배우와의 만남 및 기념촬영까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CJ Musical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8일까지 진행하는 '굿바이 위크'에서는 매회차 전 관객들에게 스페셜 엽서를 배포한다.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배우의 엽서를 배포해 관객들에게 총 7종을 모으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전의 묵직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는 1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가혹한 운명의 한가운데서 고뇌를 노래하는 '햄릿' 역에 홍광호와 고은성, 욕망과 광기로 폭주하는 '클로디어스' 역에 양준모와 임현수, 비운의 왕비이자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 역에 김선영과 문혜원, 순수한 영혼 햄릿의 연인 '오필리어' 역에 정재은이 출연한다.

뮤지컬 '모래시계' 역시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와 '신념을 지키는 인물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는 공연장 로비에 비치된 총 33종의 약속 스티커 중 하나를 선택, 모래시계를 구입한 후 약속을 지키는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이벤트다. 제작사 측은 "새해를 맞아 모래시계를 돌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약속을 정하고, 모래시계를 받아가는 '약속'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동명의 인기드라마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잘못된 시대의 억압으로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며 자신들의 우정과 사랑을 지켜 나가는 세 청년, 태수, 혜린, 우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의 감정선을 더욱 북돋아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상징성과 현대적인 재해석인 가미된 세련된 무대, 신선호 안무감독과 서정주 무술감독이 협력하여 만든 강렬한 액션과 안무가 관객을 즐겁게 한다.

2월 1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림픽 유치 '6558일'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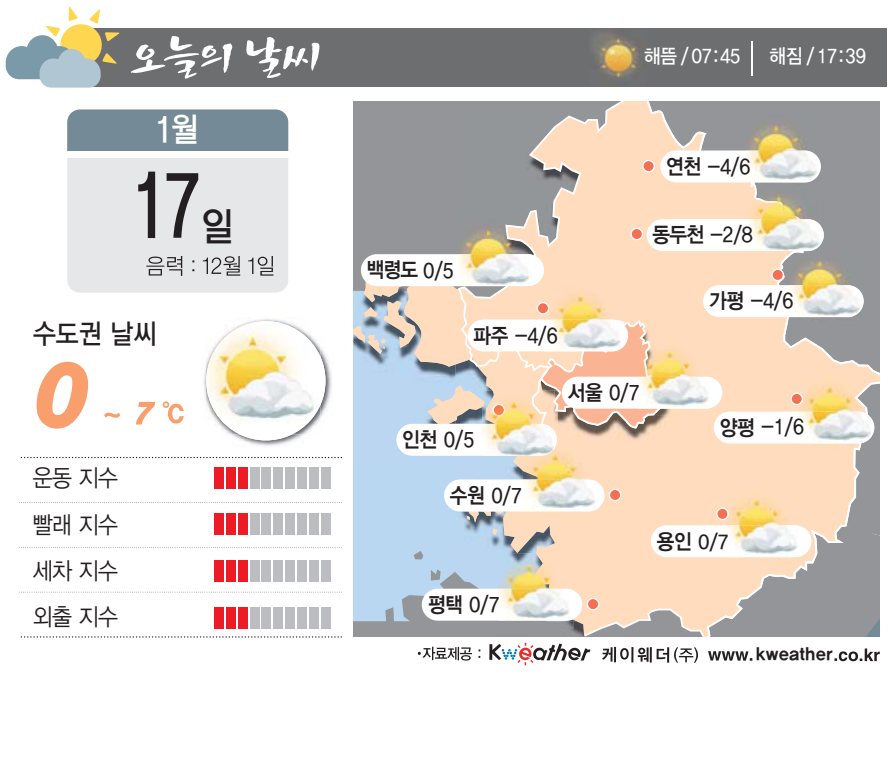
영화 '예스 평창' 다음달 개봉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예스 평창'이 2월 개봉한다. 영화 '예스 평창'은 2003년 동계올림픽을 첫 도전한 이후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강원도 평창이 2011년 7월 삼수만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까지의 6558일의 긴 여정을 담은 감동 로드무비로서 올림픽유치를 운명으로 여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꼭 개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오롯이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담겨진 감동영화다.

영화에는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선규 전 문광부 차관 등 평창올림픽유치에 참여했던 정재계 인사들 및 유치위 관계자들 수십여명과 외국 IOC위원 등 험난한 유치과정과 더불어 숨겨진 비화까지도 과감히 그려내어 치열했던 국제 스포츠 전장의 현장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또한 가슴으로 열망했던 강원도민들과 평창군민들 그리고 뒤에서 이름 없이 헌신했던 평창 서포터즈들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열망까지 고스란히 등장한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민 지지도 90프로에 가까운 열망에 힘입어 평창은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 번째 도전을 결정하고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뜨거운 유치 행보를 더한다. 영화에는 18년의 대장정과 기다림 끝에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의 승전보를 울려 퍼지게 한 진정한 주인공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울려퍼진다. /최규춘 기자 ch9720@



"음악적으로 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주의 절반은 내려놓고 싶어"

신곡 '버튼'으로 돌아온

장 재 인

"윤종신 선생님은 권위적이지 않아요. 서로 잘 삐지는데 금방 또 풀려요. 애증의 관계죠."

말 그대로 애증의 사제다. 스승 윤종신의 손을 잡고 돌아온 장재인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의 새해 첫 주자라는 것에 부담도, 기대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근 미스틱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난 장재인은 15일 발매된 신곡 '버튼(BUTTON)'에 대해 "윤종신 선생님이 가사에 최첨단 기술을 넣어 새로운 시도를 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인의 말처럼 '버튼'은 '최첨단'을 내세운 곡이다. 윤종신이 작사, 작곡하고 조정치가 편곡한 이 곡은 멜로디는 포크 스타일이지만, 가사만큼은 시대를 앞서간다. 윤종신이 영국드라마 '블랙 미러(Black Mirror)'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사했기 때문이다.

버튼 하나로 잊고 싶은 일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를 두고 윤종신과 장재인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장재인은 "(윤종신) 선생님은 '이별'을 주제로 쓰셨지만 저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불렀다"며 "아티스트들은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다. 선생님의 해석을 존중하고, 선생님도 저의 해석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노래 부를 땐 제 오리지널리티를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움 같은 거요. 이번 작업은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선생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하."

미스틱의 새해 첫 주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일인가 생각도 들었지만 좋은 일이지 않나. 어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작년에 인기를 얻었던 '좋니', '좋아'의 흥행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스틱 새해 첫주자 어필하고파

올해 목표는 '음악적 실력 향상'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최첨단' 가사를 노래하는 미스틱 여자 솔로가 됐어요. 윤종신 선생님이 '5년 뒤에는 과학기술이 가사로 뜰 거야'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도 직접 한 번 써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가사 장인' 윤종신 선생님의 새로운 시도가 장재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걸 강조하고 싶어요. 윤종신 가사의 새 시대, 그 영감을 이끈 뮤즈가 바로 저인 거죠. 하하. 농담이에요."

여성 솔로 가수들을 비롯해 컴백 대란이 이어지는 1월이기에 차트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터. 그러나 장재인은 "윤종신 선생님과 에디킴 오빠가 항상 강조하는 멘트가 있다. '음악 좀 들을 줄 아는', '고품격'을 지향하는 걸로 포장하면 어떨까"라며 "음악은 위로다. 힐링되는 음악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좋은 멘토,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기에 장재인의 음악적 욕심은 매일, 매 순간 더욱 많아질뿐이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 역시 '음악적 실력 향상'이다. 다만 지금껏 이어온 완벽주의는 절반 정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그는 "음악적으로 더 완벽한 가수가 되고 싶다. 하지만 저 스스로만 다그치고 싶다. 매니저 등 스태프들이 저로 인해 퇴근을 못하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며 "저 홀로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하고 고뇌하면서 오직 저만 다그치고 싶다. 완벽주의 성향을 딱 50%만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재인은 올해 "죽을 듯한 각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그 자신감의 바탕엔 미스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을 것이다. 윤종신의 감성에 장재인의 오리지널리티가 더해진 '버튼'을 시작으로, 또 어떤 '장재인표 음악'이 탄생 할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⑨ 쇼트트랙

韓 효자종목… '금빛 행진' 노린다

금메달 3개 목표… 3개 이상도 기대

경쟁 우선시돼 '이변' 잦아 박진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30일 앞둔 10일 오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G-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최소 금메달 3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효자종목'인 만큼 그 이상의 메달도 기대된다.

사실 쇼트트랙의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Short track) 스피드스케이팅'이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불리는 '롱트랙(Long track)'에서 독립된 종목이기 때문이다.

쇼트트랙의 시초는 1900년대 북미에서 인기를 끌던 경주식 스피드스케이팅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트랙의 길이, 경기 방식 등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독립 종목이 됐다.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인정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은 1924년 제1회 샤모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으나, 쇼트트랙은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 대회부터다.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메달밭'으로 불린다.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나온 144개 메달 중 42개(금 21개·은 12개·동 9개)를 싹쓸이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쇼트트렉 '강세'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많은 양의 훈련, 우수한 코치들의 지도력, 체형의 이점을 꼽았다.

쇼트트랙은 좁은 트랙에서 겨루는 종목인 만큼 신체의 중심이 낮고 안정적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체형이 크고 근육질인 서양 선수보다 작고 탄탄한 동양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폭발적인 파워가 필요한 단거리 종목보다 지구력이 중요한 장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쇼트트랙은 선수간 접촉 및 충돌으로 인해 '이변'이 잦은 종목이기도 하다. 쇼트트랙의 묘미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식 레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록을 중시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달리 경쟁이 우선시 된다.

쇼트트랙의 세부 종목은 남녀 500m와 1000m, 1500m, 계주 남자 5000m, 여자 3000m로 나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빛 행진을 노린다. 메달이 확실시 되는 종목은 '쌍두마차' 최민정, 심석희가 출격하는 여자 1000m, 여자 1500m, 여자 3000m 계주다. 최민정은 사상 처음으로 쇼트트랙 4종목 금메달 싹쓸이를 노린다.

임효준, 황대헌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한 남자 대표팀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기대가 모인다. /김민서 기자